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6. 28(금)

유럽

○ 벨기에, 美 대사관 테러 모의 용의자 체포

- 6.24 벨기에 보안당국은 지난 22일 駐브뤼셀 美 대사관에 대한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. 현지 언론은 벨기에 당국이 同人을 오래전부터 감시해오다 체포하였으며, 용의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

○ 러시아, 남부서 테러 준비하던 ISIS 조직원 사살

- 6.26 현지 언론은 러시아 연방보안국(FSB)이 남부도시 사라토프 지역에서 테러를 모의한 ISIS 조직원 1명을 체포중 사살하고, 총기와 탄약·사제폭탄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보도
 - * FSB는 ISIS 조직원이 사제폭탄 제조를 위해 사라토프의 한 주차시설에 실험실도 만들었다고 설명

아·태평양

○ 스리랑카, 부활절 테러 이후 '비상사태' 한 달 더 연장

- 6.22 현지 언론은 「시리세나」 대통령이 '공공안전과 질서 유지, 공동체에 필수적인 서비스 유지 등을 위해 비상사태를 7.22까지 연장했다'고 보도
 - * 4.21 부활절 테러로 비상사태 선포 후 5.22 1차 연장, 6.22 2차 연장

○ 일본, G20 정상회의 대비 경찰 3만2천명 투입

- 6.24 일본은 6.28~29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3만2천명의 경찰관과 순시선 60척을 동원하고, 회의장 주변에 동

판벽(높이 3m, 길이 2.5Km) 설치 및 주요 역의 유료사물함과 쓰레기 통을 폐쇄한다고 발표

○ 사우디, ISIS 예멘지부 두목 생포

- 6.26 아랍동맹군 대변인은 사우디 해군 특수부대가 ISIS 예멘지부를 이끄는 두목 「아부 오사마 알무하지르」의 은신처를 급습, 두목과 고위급 조직원들을 생포했다고 발표

* 은신처에서 각종 무기와 탄약, 노트북, GPS장비 등 통신장비와 화폐도 압수

아 프 리 카

○ 사헬지대, 극단주의 테러조직 ‘지하디스트’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

- 6.21 AFP통신은 사헬지대*가 사헬G5 연합군의 대대적인 테러조직 축출작전에도 불구하고, ‘지하디스트(이슬람 성전주의자)’가 민간 속으로 은신하였고, 일부는 ISIS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

* 모리타니·말리·니제르·차드 등이 위치한 사하라 사막 남쪽의 반건조 초원지대

○ 에티오피아, 쿠데타 발생으로 육군참모총장 피살

- 6.23 「아비 아흐메드」 총리는 북부 암하라州에서 안보책임자인 한 장성의 주도로 쿠데타가 발생하여 「메코넨」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고위관리가 사망했으나, 쿠데타는 실패했다고 발표

* '18.6월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「아흐메드」 총리를 노린 폭탄테러 발생

○ 아프간 탈레반, 언론에 “反탈레반 보도 중지할 것” 경고

- 6.24 탈레반은 아프간 內 TV·라디오·신문 등 언론에 성명서를 발송, “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이루어지는 反탈레반 보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속 기자나 직원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을 것”이라고 경고

나이지리아 버스정류장 연쇄 자살폭탄테러

- '15. 6. 22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마이두구리의 버스정류장에서 연쇄 자살폭탄테러가 발생, 20명이 사망하고 50명 부상
 - 목격자들에 따르면, 17세 가량의 소녀가 냄비를 들고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을 끌어모았고 사람들이 모이자 냄비가 갑자기 폭발했으며, 잠시 뒤 근처에서 또 다른 소녀가 자폭했다고 진술
 - 전문가들은 소녀들에게 폭발물을 장착 후, 제3자가 원격조종해서 폭발시키는 '인간폭탄' 형태일 것으로 추정
- 테러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, 당시 「무함마두 부하리」 신임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무장단체 보코하람을 격퇴할 것을 선언('15. 5. 29)한 이후 테러가 급증*한 만큼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

* 격퇴선언 이후 약 3주간 보코하람에 의한 테러 총 5건 발생(208명 사망)

< 사헬지역(Sahel zone) >

- (개요) '해안(가)'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유래,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사바나의 경계에 있는 지역을 지칭
- (국가) 나이지리아·세네갈·니제르·수단·에리트레아·모리타니·말리·부르키나파소·알제리·차드 등이 사헬지대에 포함
- (기후) 1년의 대부분이 건기(年강우량 200mm)인 만성 가뭄지역으로, 과거부터 대규모 기아사태가 잦았으며 최근 정부의 무능과 무분별한 벌목 등으로 사막화가 가속
- (테러동향)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 ISIS 패퇴이후 무장테러단체의 근거지로 부상, 보코하람·ISIS·알카에다 마그렙지부(AQMI) 등이 활동 중
- (대응) 사헬 G5(모리타니·말리·니제르·차드·부르키나파소)는 연합군을 구성하여 대테러·치안활동을 수행중이며, 프랑스·美·EU·UN 등 서방국가도 대테러 활동 지원중